

##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

— 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대상으로 —

안 숙 원\*

1. 성 해방의 간추린 소재사
2. 「현숙」과 계약결혼
3. 「김연실전」 다시 읽기
4. 맺음말

### 초록

본고는 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성 역할 전환의 소재 전통 속에서 검토한 것이다.

텍스트가 한 시대와의 컨텍스트를 이루기도 하지만 초시대적 상호텍스트성을 갖는 것이 문학 소재사 내지 주제론의 방법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나혜석과 김동인이 그들 시대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신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각각 「현숙」과 「김연실전」으로 대응한 것은 현실상관성도 갖지만 서사를 주도하는 여성들이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에로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 해방의 소재사에 접맥되어 있다고 하겠다. 에로스의 역전극은 실상 여성 억압의 역사만큼이나 길고도 오랜 양성공존의 문화적 본능에 다름 아니다.

이를 개화기의 여성작가와 남성작가가 재독해한 「현숙」과 「김연실전」은 그러므로 성 역할 전환의 개화기식 변이라고 할 것이다. 이 텍스트들은 가정을 박차고 카페나 학교 같은 공적 영역으로 나온 기출여성 주인공이 서사를 주도하며 속물적 신남성을 길들이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지만 차이점도 있다. 예컨대 「현숙」에서 주인공 현숙의 섹슈얼리티는 자의식에 바탕을 둔 계산된 것이라면, 「김연실전」의 경우 욕망과 일탈

\* 인제대 강사

을 혼동한 신여성성의 허위의식이란 것이다. 곧 「현숙」에서 타산적이고 영악스러운 카페여급 현숙이 금전등록기로 자처하며 그녀 주위의 신남성들과 계약결혼을 제의하는 위악적인 여성인데 비해 「김연실전」의 동경유학생 김연실은 통속소설을 탐독하다 문학=연애라는 생각에 이르고, 연애는 여성해방인 즉 연애를 경험해야 선각자가 된다고 믿으며 남성편력에 나서는 위선적 여성이다. 이 같은 낙차는 전자가 여성에게 호의적인 여성 텍스트이고, 후자는 여성에게 적대적인 남성 텍스트인 것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 1. 성 해방의 간추린 소재사

성 역할 전환의 얘기는 이미 신화시대 고구려 시조모 유희로부터 역사시대의 선덕여왕, 중세의 기생 송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상(prefiguration)을 거느리고 개화기의 신여성들, 나아가서 근래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서도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가운데 유희나 선덕여왕이 왕조를 창업하고 전쟁을 막아내는 대모신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중세 이후부터는 아예 가부장 사회의 예외적 존재들로 요부나 마녀같이 죄악시되었다는 점에 성 역전극의 특징이 있다.

예컨대, 고구려 동명왕의 어머니 유희는 동부여 왕자 대소형제의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떠나는 아들 주몽을 위해 까치로 하여금 오곡 씨앗을 물고 가게 하는 등, 왕조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고려시대까지도 동국성 모로 추앙되었던 여성이다. 비록 아버지 하백과 남편 해모수로부터 버림받고 겨우 의탁한 금와왕에게서조차 알을 낳는 변괴로 소외되었지만 고구려의 국조모로 숭배되는 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김재용, 이종주교수에 의하면, 유희가 만주족의 창조신화 「천궁대전」에 나오는 창조여신 버들천모와 동격이 아닌가 주장되기도 한다.<sup>1)</sup> 왜냐하면 만주족의 시조 포고리웅순을 낳은 불교론이 그들의 시조모인 푸투마마(佛多媽媽)와 동일인이고 ‘푸투마마’는 한자로 ‘유마마(柳媽媽)’이니 여성성기와 버드나무

1)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동아시아, 1999), pp.167~168.

를 동일시하는 만주 샤머니즘을 고려할 때, 유화란 이름이 예사롭지 않고 그녀의 대모신다운 성격은 백두산 너머에 널리 분포되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신라 선덕여왕 또한 여성 통치자가 드문 우리 역사에서 어느 남성국왕도 따르지 못할 대담하고 슬기로운 정치를 펼쳐 보였다. 『삼국유사』엔 그녀가 서라벌 서쪽 여근곡 옥문지에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기습 전략으로 백제 침략군을 격퇴한 얘기가 전한다. 전쟁이 끝난 후 신하들이 여왕더러 어떻게 백제가 침략한 줄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여왕은 개구리 울음은 전쟁을 의미하고 서쪽은 백색이므로 백제군의 침략이 분명한데, 옥문지란 여성의 성기이니 남성이 그 안에 들고 보면 무슨 수로 견뎌내겠느냐고 거리낌없이 대답했던 것이다.

선덕여왕이 인간 섹슈얼리티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듯이, 그에 대한 가부장사회 남성들의 대응은 여성 에로스의 억압으로 나타나 나라 곳곳에 유형, 무형의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다. 충북 진천 남하리에도 여성 성기를 닮은 지형이 있어 좌청룡 우백호가 여성의 두 다리를 이루고 옥문에 해당될 지점에 샘물이 솟아, 부처님의 공덕으로 마을 여성들의 음기를 잠재우려는 발심에서였는지, 그 곁에 마애삼존불을 새겨놓은 것을 본 적이 있다. 아닌게 아니라 겨울 가뭄에도 불상 주변엔 물이 질퍽하고 여름에 자랐을 물봉숭아며 달개비들이 무성한 음모 같았다. 남성들의 왜소컴플렉스가 빚어낸 여성 에로스의 억압현장이 어디 그 곳뿐이랴. 경남 산청은 본디 山陰이던 것을 일곱 살짜리 여자애가 아기를 낳았대서 지명을 山淸으로 바꾸는 통에, 덩달아 인근 마을 安蔭 安義로 바꿨다고 하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해방을 향한 여성의 도전이 전개되어 온 데 유의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기생 송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지조를 상징하는 낙락장송에 스스로를 빗대어 자신의 에로스를 마음껏 과시하고 있다.

술이 술이라 하니 무슨 술인 줄만 아난다.  
천심절벽 위의 낙락장송 그 내로다.  
길 아래 초동의 점낫이야 걸어볼 줄 있으랴.

그녀는 자신의 이름 송이(松伊)=소나무의 등가관계를 통해 자기를 깎아지른 절벽 위의 낙락장송에 올려놓았다. 중의법이라고도 할 술의 비유에다 시어와 음운상의 반복효과로 시조의 수사학적 재치도 그러려니와 남성 성기를 한자 끝베는 초동의 <점낫>에 은유함으로써 남/여의 대조법이 극소와 극대로 두드러진다.

이 시가 어느 시대보다 가부장적 유교이념이 강화되었던 중세 한국사회를 컨텍스트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기생 송이의 풍류는 실로 도도한 성 역전극을 연출해 보인 것이다.

이제 그 같은 소재전통에 기대어 근대 초기 나혜석과 김동인이 재독해(re-reading)한 성 역할 전환의 서사체가 「현숙」과 「김연실전」이며 필자는 이들 개화기식 변이들을 놓고 당대의 화두였던 신여성<sup>2)</sup>의 섹슈얼리티를 보아내고자 한다.

## 2. 「현숙」과 계약결혼

### 1) 남녀이합의 반복모티프와 계약의 수사학

「현숙」(『삼천리』, 1936. 12)은 나혜석이 40세 때 발표한 작품으로 일반

---

2) 신여성(New Woman)은 영국 빅토리아시대 규범에 맞선 독립적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1894년 처음으로 사용된 이래, 한국에선 20세기 초 주로 근대식 신교육을 받은 여성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신여성 담론은 문학에서 신시, 신소설, 신극 따위의 장르에 상응되는 과거의 유산으로부터의 해방의 표현인 동시에 현존하는 현실이 아닌 약속으로서의 근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 텍스트(time text)이다.

독자에게나 연구자들에게 좀 생소하지만 그녀의 대표작 「경희」(1918)와 여러 모로 비교된다. 비슷한 것은 여성 주인공이 서사를 주도하고 그 플랫폼은 장면끼리의 병치구조라는 점, 서술유형상 인물시각적 서술이란 것이고 다른 것은 「경희」의 성격규정은 주인공 경희가 직접 텍스트 문면에 나서지 않은 채 주위 사람들에 의해 성격화되는데 비해, 「현숙」에선 여성인물이 주위의 남성들과 만남·이별의 동일모티프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경희」에서 내포작가는 초점주체 경희를 통해 긍정적 신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계몽주의를 지향했다면, 「현숙」은 그런 교훈성 담화를 벗어난 모더니즘 텍스트로서 개인의 에로스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담화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나혜석 페미니즘<sup>3)</sup>의 연장으로 읽혀진다. 말하자면 나혜석이 「경희」에서 가부장적 아버지의 결혼 강요에 반기를 들고 가정내적 개혁과 여성의 주체적 삶을 다짐할 뿐, 자신의 결혼관을 뚜렷이 드러내진 않았는데 「현숙」을 통해 그 구체적 대안으로 계약 결혼 형식을 제시한 것이다.

다음은 「현숙」의 줄거리를 요약한 것이다.

① 현숙은 남대문역 부근 깍다점(찻집)에서 반년 전에 동거했던 신문기자를 만나 L에게 보낼 편지 대필을 부탁한다. 현숙은 깍다점 임대 운영 계획을 기자에게 의논하고 기자는 현숙이 카페 여급이 된 걸 힐난하며 부자노인을 패트런으로 가졌다는 등 비아냥거린다. 현숙은 감정의 소모를 피하기 위해 급진등록기처럼 살겠다고 말한다.

② 현숙과 동숙하는 하숙집 Y시인은 한때 시집을 출판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별로 하는 일없이 독신인데, 어떤 학교 교가 작사를 해 준 일로 그 학교 학생들이 찾아오자 자기가 작사한 그 노래에 취해 흐뭇해 하며 옆방의 L과 학생들로 더불어 술을 마신다. L은 화가 지망생으로 선전(조선미술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Y시인을 모델로 정하고 맥주를 대접하며 현숙의 나쁜 평판에

3) 송명희 교수는 나혜석의 페미니즘을 전·후기로 나누어 앞 시기를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뒤의 것을 급진적 개방적 페미니즘으로 보았다. 송명희, 「나혜석의 페미니즘 연구」, 『웅진어문학』 4호(웅진어문학회, 1996), p.71.

안타까워하나, 현숙은 연애는 회계로 시작돼야 한다면서 L의 열정을 경계한다.

③ 새벽에 술에 취해 돌아온 현숙을 걱정하던 Y시인은 현숙이 모델로 일하던 화가 K의 집에 찾아가 현숙을 책임지라고 따지나 K는 현숙에겐 자기 말고도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며 발뺌한다. Y시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폭음을 하고 현숙은 자신의 불성실한 생활을 반성한다.

④ 현숙이 하숙을 옮기자 L은 실망하고 Y도 L의 모델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술로 세월을 보낸다. 그때 L에게 편지가 두 장 와서 L이 그 중 주소성명 없는 편지를 지정한 장소에 전해 주러갔다가 현숙의 숙소란 걸 알고 놀란다. 현숙은 신문기자가 L과 친히 지내라고 쓴 편지를 읽고 문밖에 세워둔 L더러 <브라보>라 불러주겠다고 Y에겐 비밀로 반년간의 계약결혼을 제의한다. L은 수락은 하나 씩씩해 한다.

이 작품의 서사의 중심축은 현숙이며 그녀는 계약에 의해 남성들과 만남·이별을 거듭한다. 그러한 남녀이합 관계가 텍스트엔 모두 세 번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반년 전 어느 신문사 기자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현재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유명화가 K, 세 번째는 앞으로 함께 살 화가 지망생 L이다. 현숙은 이들과 반년을 주기로 계약의 이행과 완료라는 계약결혼을 하는 것이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의 수사학은 i)계약 당사자의 합의 존중, ii)계약 기간 명시 따위를 전제로 한다. 더욱이 결혼의 계약이란 매우 파격적이기도 하려니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질 토대가 필요한데 소설 「현숙」이 전통 결혼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결혼 모델로 계약결혼을 시도한 것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대 현실을 간과한 까닭에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정은 동시대 작품인 최정희의 「지맥」 등에서 보이는 유학생 출신 여성의 기생집 침모살이나 강경애의 여성 주인공들이 겪는 빈궁의 참담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 1930년대의 실직과 가난은 한국인에게 전국민적 범위로 확산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텍스트에서 이미 현숙은 깍다짐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불경기라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고,

밤새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울적해 하는 점으로 미루어 그녀의 경제적 곤란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도 현숙의 계약결혼이 매춘과 다른 점은 그녀의 자의식과 앞서 언급한 계약의 수사학이 있고 내포작가가 결혼이라는 기존 관습이나 제도를 전복하려는 메시지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숙」에서의 결혼은 여성 주도 아래 남성이 수동적인데다, 결혼의 기간도 반년이란 한시적 기간을 정한 터이라 ‘검은 머리 파뿌리될 때까지 백년해로’하는 전통결혼이 아니다. 아울러 결혼생활의 공간도 집이나 가정과 같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여관 혹은 하숙 따위 공적 영역이다. 이 대체가정엔 가족이 부재하는 대신, Y노시인이 있어 <아버지 같은 어조로> 때로는 엄숙하게 현숙을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그녀를 위로하기도 한다. 현숙 역시 노시인의 옷을 꿰매어 주고 술도 대접하는 등 그에게 단순한 애독자 이상의 호의를 베푼다. 텍스트엔 현숙을 걱정하는 화가지망생 L과 더불어 그들이 한 여관에서 <친신>(한몸)처럼 생활하면서 수입도 없는 노시인을 현숙이 봉양하는 것으로 암시되고(단락③) 있어 이들의 대체가족 공동체다운 속성을 분명히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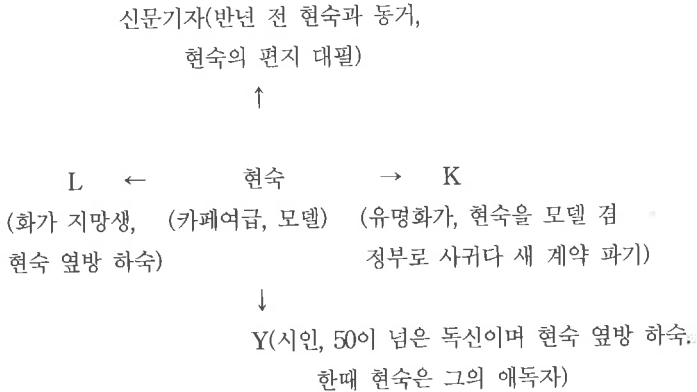
## 2) 초점화와 엑스트라 남성들

「현숙」에는 주인공 현숙을 중심으로 남성들의 행태를 보여줄 뿐 다른 여성은 등장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비판도 없다. 또한 작중인물들 가운데서 현숙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신문사 기자, L, Y, K 등 익명의 존재들이다.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도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도식 1>에서 보듯 개성화된 인물은 현숙뿐이고 나머지는 남성들로 어법적 수준에서나 심리적 수준에서도 흐릿한 익명의 인물들이다.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량의 단위나 시간징표도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5·6 분(本) 빠루(맥주), 3·4매의 편지, 4·5인의 남자, 4·5시간, 수일 오후, 근일내로, 3·4분간> 등등 그 위에 장난편지, 대필편지, 주소 성

<도식 1>



명 없는 편지들 하나같이 희미한 것들이다. 심지어 보통 소설 속 인물들의 직접대화에선 사람의 이니셜을 부를 수 없는 데도 “여보세요. L씨…… L씨! 나는 이제 L씨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대신 브라보를 불러 드리지요. 브라보, 브라보”라고 함으로써 통사론적 코드 위반에다 기껏 불러 준다면서 <브라보>가 고작이다. 또한 L은 다른 인물보다 현숙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건만 단 두 마디밖에 말하지 않는다. 이는 서사의 초점화가 현숙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초점화란 작가가 제일 강조하고자 하는 인물로 그는 말은 하지 않지만 느끼고 생각 하는 주체로서 어떤 존재자이다. 이 작품의 서술유형은 인물시각적<sup>4)</sup>으로 미메시스에 의해 서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초점화자는 현숙인 것이다.

초점화자로서 현숙의 존재는 언술층위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곧 ① 서술자의 입장 변화, ② 인물의 발화(Discourse of Character) 속의 서술자의 발화(Discourse of Narrator), ③ D.N 속의 D.C, ④ 서술자

4) F. 슈탄젤의 용어. 인물의 시각이 서술의 기준으로 직접 인용하여 서술하지 않아도 각 인물들의 체험과 발화흔적이 남아있으면 작가서술상황과 구별되어야 한다.



논평들이다.

이를테면, ① 서술자의 입장이 변화하는 경우, 서술자는 텍스트의 앞부분에서 인물 호칭을 <여자는>, <남자는> 하는 식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부르다가 서사가 진행될수록 <현숙은> 하고 현숙의 입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② D.C 속의 D.N는,

「그러나 L씨, 나는 근일대로 이집을 떠나가려 해요.」

「여보세요, L씨……」

등에서 보듯 인물의 직접대화 속에 L이란 사람의 이니셜을 부르는 것은 한국어 어법상 어색하다. 이 인용문은 현숙의 발화들인데 여기서 그녀가 대화 상대자인 L더러 <L씨!>라고 호칭하는 것은 인용되는 발화(D.C)의 틀짜기에 개입한 내포작가의 말투이다. M. 바흐진은 인용하는 말(D.N)과 인용되는 말(D.C)사이의 관계를 경계짓는 것이 인용어법이라 하여 소설 장르의 특색으로 꼽기도 한다. 이때 누구의 가치관이 발화의 역량들에 의해 분절되는가를 보고 소설텍스트의 예술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③ D.N 속의 D.C는,

여자는 죽죽 답장을 읽었다. 최후에 '친구의 여관에서 당신을 사모하며'라고 했다. 그 다음에 …… 이라고 쓰면 우습겠는데, 그렇게 일행을 썼다.

에서 보듯 이 부분은 현숙이 반년 전에 헤어진 신문기자를 만나 L에게 보낼 편지 대필을 부탁한 뒤, 기자가 쓴 걸 읽고 <그 다음에 …… 이라고 쓰면 우습겠는데> 덧붙여 썼다는 것이다. 현숙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서술자가 현숙의 입장에서 말하기(혹은 글쓰기) 곤란한 것을 생략함으로써 내포독자로 하여금 독서의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내포작가와 내포독자의 대화인데 이를 가로막는 무리한 담화 전략은 작가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서술자에 의한 이러한 숨겨진 발

화는 내포작가의 자기 투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짐작컨대, 장난기 어린 대필 편지라고는 하지만 당대 독자들의 기대 지평을 감안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④ 반영자<sup>5)</sup>로서 서술자 논평은 현숙이 초점대상이다.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이 현숙을 초점 주체로 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보아온 바대로이지만 동시에 그녀는 초점대상이기도 한데 그럴 경우에도 그녀가 서사를 주도하는 건 여전하다. 그녀는 <언제든지 화풍(和風)이 부는> 여성이며 <어떠한 이성에게든지 기욕(嗜慾)을 소화할 수 있는 여자>이다. 스물 세 살의 카페여급으로 <흰 살결, 마가호니 같은 따뜻한 숨소리>의 관능미와 시를 애독하는 지성도 가졌다.

이러한 현숙의 개성에 비해 그녀 주위 남성들이 그저 익명인 채로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있으나마나한 엑스트라들임을 가리킨다. 주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적인 표지가 이름인데 남성들의 익명성 때문에 그들은 마치 중세 서양의 종교화에서 주요인물은 정면을 그리고 부차적인 인물은 옆얼굴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들 엑스트라들은 동일한 에피소드의 반복으로 현숙에게 인식되는 ‘낮익은 인물들’-속물적 남성일 반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문학과 그림 양쪽 다 배경 처리에서 중심대상의 묘사가 재현된 현실의 기호라면 엑스트라들은 이런 현실의 기호의 기호로서 관습적(기호론적) 존재인 것이다. 즉 현숙의 개성이 생생한 반면 기자, L, Y, K 등은 타락한 지식인 남성들을 드러내는 기표들일 뿐이다. 현숙에게 여급이 되었다고 탐탁지 않아 하는 기자, 선전 출판을 목적으로 전당포를 들락거리는 화가 지망생 L, 오래 전 시집을 출판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시도 쓰지 않으면서 시인이랍시고 자기연민에 젖어 사는 Y 노시인, 현숙을 모델 겸 성적 파트너로 적당히 지내다 그녀의

---

5) 반영자(reflector)란 서사체에서 초점화(focalization)와 같은 의미로 시점을 논의할 때 쓰이는데 초점화가 초점주체와 초점대상으로 좀더 세분화시켜 볼 수 있게 한다. 반영자나 초점화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가 전달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복잡한 이성관계를 트집잡고 재계약을 파기하는 화가 K, 그러면서도 남성들은 현숙이 자기와만 계약한 줄 아는 어리석음을 보인다. 그들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정절이데올로기는 지독하게 여성 에로스에 상처를 입혀 온 것이다. 그 속엔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는 여성의 사물화가 자리 잡은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 기자는 현숙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가 <영원히 L의 소유>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여성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은 사물화된 주체=하위주체(subaltern)<sup>6)</sup>이고 당연히 남근적 상징인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니 물질 토대가 허약한 여성의 주체적 삶이 가능하겠는가. 그러기에 현숙이 계약결혼이란 파괴적 방법으로 능동적 여성의 삶을 살고자 하나 생활능력도 없는 L과의 계약은 금전등록기로 자처하는 현숙의 자가당착이다.

### 3) 말하지 않은 얘기 : 환멸의 에로스

「경희」에서의 청춘의 팽팽한 탄력과 단호한 자기다짐의 어조와는 달리 「현숙」은 언술 층위에서 현숙을 제외한 작중인물들의 익명성과 더불어 난잡한 어휘, 부정확한 숫자들, 불분명한 시간징표들이, 장난편지, 대필편지, 익명편지 따위와 대응되면서 머뭇거리고 생략하는 발화 역제가 많다. 이는 「현숙」이 근대도시 서울을 배경으로 지식인 군상을 그린 모더니즘 문학임을 가리키는 것일 테지만 말할 듯하면서 여성 주인공의 망설이는 언술 때문에 내포독자의 텍스트 이해를 방해하기도 한다. 현숙이 카페여급으로 금전등록기처럼 명쾌하게 살기로 했다는데도 그 언술은 몰타기수범처럼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모더니즘 텍스트의 특징이라 해도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실제 작가 나혜석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녀의 허구적 형상인 현숙의 이런 태도는 뜻밖이다.

---

6) 그람시(A. Gramsci)는 하위주체를 부르주아 사회의 문화 헤게모니에 의한 억압형태를 의미하나 스피박(G. Spivak)은 식민지 하층계급 여성의 여성성을 규명하는 범주로 삼는다.

- ① “K선생은 참 자모여, 선생의 일을 언제 다 귀공에게 말하지……”
- ② 아무 말도 아니해서 선생들 하는 일이 우스우나 만일 지금 내 생활을 선생이 알 것 같으면……
- ③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내가 이야기할 것이 많아요……”

위 인용문 ①은 현숙이 상점 점원과 <자모(刺毛)>같은 K화백의 모델을 그만 두고 카페여급이 된 것을 두고 신문기자가 힐난한 데 대해 대답한 것이며, ②는 현숙이 화가 K로부터 계약이 취소된 것을 통보받은 뒤 폭음을 하고 돌아온 이튿날, Y시인이 위로해 줄 때 그녀가 독백한 내용이다. 또 ③은 현숙이 기자의 편지를 전달하러 온 L을 자기의 여관방으로 들어오라며 그 동안의 얘기가 많다고 말한 대목이다. 그러나 현숙은 기자에게도, L에게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포독자도 궁금증을 갖게 된다.

<할 말이 많지만> 말하지 않는 것은 편지쓰기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엔 모두 네 장의 편지가 등장한다.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도식 2>와 같다.

#### <도식 2>

- ① L → 현숙 (L이 현숙에게 사랑고백 리브레터)
- ② 현숙 → L (현숙이 L에게 장난편지, 기자 대필)
- ③ 기자 → L (기자가 L더러 심부름 편지)
- ④ 기자 → 현숙 (기자가 현숙에게 L의 사랑 받아들일 것 종용)

여기서 편지는 이 작품의 구성적 동기화로 현숙과 L과의 계약결혼은 편지 주고받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편지는 내면고백이자 타인과의 사적인 교신수단인데 「현숙」에서 편지들은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고백되어야 할 내면은 장난기로 윤색된다. 현숙은 L의 리브레터를 기자에게 보여주고 답장 대필을 부탁하며, 기자

는 현숙에게 보내는 편지를 익명으로 써서 L더러 전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익명의 편지는 현숙에 의해 L에게 읽혀지는 등, 편지라는 사적 영역의 의사소통 체계가 육필/대필, 서명/무서명, 장난/진지함으로 들쭉날쭉 무시되는 까닭은 내포작가의 발화에 대한 자기감시 때문이다. 이것은 푸코식으로 말해 주체의 대상화로서 푸코는 그 한 예를 원형감옥 죄수의 자기검열 과정을 들고 있다. 무엇이 이토록 현숙으로 하여금 망설임과 생략어법 따위로 발화를 억제하게 하는 것일까. 전후 문맥으로 보아 말하고 싶지 않거나 말하기의 상황이 부적절할 때 이 숨겨진 발화는 환멸의 에로스에 관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 투사가 <레지스터(금전등록기)>이다. 현숙은 연애의 시작은 회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리 되면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감정 파다로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다.

정말은 감정보다 회계, 회계 말이야 …… 연애의 입구는 회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좋아, 참 나는 지금까지 감정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실패해 왔어  
……

(「현숙」, 『삼천리』(1936. 12), p.242)

그녀는 순정에 찬 청년의 열정을 경계하고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명쾌한 반응 100%>인 금전등록기처럼 살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금전등록기는 타락한 남성에게 대한 타락한 전략인 셈이다. 이에 대해선 이호숙 교수도 위악적 방어기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7)</sup> 상처에 강박된 에로스의 환멸, 그 극단에 이 작품의 구성적 상징인 금전등록기가 놓여 있다. 이리하여 남성인물들의 익명성 아이덴티티와는 대조적으로 현숙은 뚜렷한 자아 각성을 한 여성이면서 타산적이고 영악스럽다. 그러나 계약결혼을 부

7) 이호숙, 「위악적 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한길사, 1995), p.87.

르짓는 그녀의 호기에 비해, 그녀가 깃다점 운영자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나 계약의 상대방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화가 지망생 L을 선택하는 것은 현실이 계산대로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혹은 현숙이 자신의 단칸 여관방을 L에게 <침실 겸 서재>로 소개하는 것은 실제 작가 나혜석의 무의식의 표출일망정 가난한 카페 여급 현숙의 처지에 허장성세요, 생활감각을 결여한 발언이다.

말하자면 소설 「현숙」은 표면적인 층위에서 영악하고 타산적인 여급을 풍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작가가 1930년대 도시 서울의 타락한 남성들에 대응하기 위한 타락한 방법을 금전 등록기에 비유, 계약결혼이란 여성이 이끄는 삶의 한 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나혜석이 이혼 후 세태의 변덕스러움, 남성들의 배신에 상처입은 작가의 개인사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대남성 공격의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공격은 때로 도발적이다가도 때로 생략어법 같은 자기 감시에 걸려 언술상의 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여성 섹슈얼리티의 실제 규명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렇더라도 「현숙」은 자의식 강한 여성에 의해 주도되는 계약결혼의 파격성, '집'이 아닌 여관 같은 공적 영역으로 나온 여성이 혈연 공동체 대신 동숙자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대체가족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경희」가 가정 안에서 유교적 가부장사회 가족윤리에 반발하는 여성을 그렸다면, 「현숙」은 가정 밖에서 정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결혼형태에 대한 부정과 그 구체적 대안을 보여준 것이다. 또 그런 계약결혼에 필수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현숙이 생각해 낸 물적 토대가 깃다점 운영이었고 그것은 남성들을 상대로 구좌당 성적 서비스를 하되, 서로들 자기 혼자만인 줄 알도록 추진된다. 그녀는 섹슈얼리티의 사적 영역을 보장하는 척하면서 남자들의 소위 <신사계약>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이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한, 어디까지가 욕망이고 일탈인지 미묘한 문제다. 그러나 현숙의 계약결혼과 관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대 여성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매춘과 구분

안 되는 낚다점 운영 따윈 비판을 면키 어렵다.

요컨대 「현숙」은 에로스의 상처와 남근적 힘(phallic power)의 상징인 돈으로부터 소외된 여성의 파괴적 충동이 야기한 기상천외한 개화기식 언술이라 할 것이다.

### 3. 「김연실전」 다시 읽기

#### 1) 몇 가지 오독의 사례들

성적 일탈과 욕망을 혼동하기로는 한국문학사에서 「김연실전」(『문장』, 1939. 3)의 김연실만한 인물도 드물다. 「현숙」이 1930년대 식민지 서울의 신여성 카페여급의 섹슈얼리티를 다룬 것이라면, 「김연실전」은 당대 서울보다 더한 문화중심지이자 부패, 타락의 도시, 동경에 유학한 가솔소녀 김연실의 남성편력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타락한 신여성의 전형으로 한국문학 독자들에게 각인돼 있을 정도이다.

그 동안 이 작품에 관한 논의는 신여성의 허위성을 비판했다는 것과 환경에 희생된 여성 희생자를 형상화한 여성적 작품이라는 양극단에서 이루어져 왔다. 전자는 이재선, 김양선 교수의 입장이고, 후자는 정인문 교수 등의 견해이다. 먼저 이재선 교수는 「김연실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여성의 가면을 폭로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 연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난교상태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도 도덕적으로 문란한 가족환경과 긴밀히 연관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

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268.

위 글은 환경결정론에 입각한 김동인의 자연주의 문학론에 대해 검토하면서 「김연실전」을 예로 든 것인데 이 작품이 <신여성의 가면을 폭로>했다고 보았다. 「김연실전」에 관한 작가의 의도와 창작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또 김양선 교수는 페미니즘적 독해를 통해 김동인과 염상섭의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신여성 드러내기의 두 가지 방식」이란 글에서 ‘사이비 신여성 의식’을 비판하면서,

…… 당시 신여성의 방탕함, 선각자의식 등은 동인의 「김연실전」에서 적나라하게 그려졌거니와 ……<sup>9)</sup>

라고 말했다. 김동인이 「약한자의 슬픔」과 「김연실전」 등에서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인문 교수는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김연실전」과 일본 자연주의 작가 도쿠다 슈우세이(徳田秋聲)와의 관련을 살피고, 두 사람이 여주인공을 하층계급 출신의 환경의 희생자로 그리는 공통점이 있다 하였다.

한국 근대문학사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근대여성 즉 신여성에 대한 밀도 있는 이해와 애정을 보인 최초의 작가는 김동인일 것이다.……

동인이 한국근대 작가 중 최초로 유일하게 여성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여성문학>의 수준으로까지 그의 작품세계를 이끌 수 있었던 뒤에는 김원주를 비롯한 당대의 신여성 지도자들과의 폭넓은 교제와 우정이 존재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sup>10)</sup>

위 정인문 교수의 논지 가운데서 <김동인이 한국근대작가 중 최초로 신여성에게 호의를 보인 작가><sup>11)</sup>라는 것은 차치하고, 「김연실전」을 두고

9) 김양선, 「신여성」드러내기의 두 가지 방식, 안숙원 외, 『한국여성문학비평론』(개문사, 1996), p.113.

10) 정인문, 『한일근대 비교문학 연구』(수서원, 1996), pp.157~163.

11) 신여성에게 호의적인 작품은 나혜석의 「경희」(『여자계』, 1918. 3)가 최초임은



주인공 연실이 하층계급에, 가부장 사회의 여성 희생자이기 때문에 <여성문학>이라는 결론은 소박한 반영론으로서의 텍스트 해석이라 생각된다.

그 외 김연실이 '보다 나은 삶의 궤도를 위해 정력적으로 정진해 온 신여성'이었지만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가는 자만이 겪는 혼돈과 미숙이란 개인적 원인과 그녀의 이상에 발맞추지 못한 사회구조 때문'이란 지적도 나왔다.<sup>12)</sup> 이와 같은 기존 논의들은 본격적인 「김연실전」의 작품론이 아니어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신여성에 대한 김동인의 작가의식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로 압축된다고 하겠다.

어차피 문학비평이란 오독(misreading)의 역사일지도 모른다. H. 블룸이 그의 저서 『오독의 지도』(*The Map of Misreading*)에서 “시의 올바른 해석은 없으며 다만 잘못된 해석만 있을 뿐”<sup>13)</sup>이라고 한 의미에서 필자도 「김연실전」 다시 읽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김열규 교수의 말대로<sup>14)</sup> 「김연실전」의 주인공 김연실은 대모신의 原像에 이은 개화기식 변이로서 '새로이 태어나는 여성'이다. H. 썩수와 『새로이 태어나는 여성』(*The Newly Born Woman*)의 공동 저자인 C. 클레망은 이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 지옥/천국의 구조가 새로이 태어나는 여성의 모습을 지배한다며 문화적 인과성으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sup>15)</sup> 그러니까 '새로운 여성'은 남성의 타자로서가 아닌, 남성과 양립 공존하는 여성이다. 마치 H. 위고의 유명한 '거미와 나비'<sup>16)</sup> 에피소드가 그의 자아의 양면이듯이 양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문화적 본능이 '새로운 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 '신여성'의 위상은 썩수의 그것보다 시차적 개념으로서 개화담론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개화기라는 역사적

---

여성문학연구자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다.

12) 김지은, 「김동인 단편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3) D. 호이,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비평』(문학과지성사, 1988), p.208.

14) 김열규, 「문학과 페미니즘」(이대 한국어문연구소, 1994. 11. 25).

15) Helene Cixous and Catherine Clement, *The Newly Born Woman*(Minnesota Univ. 1975), p. xi

16) Ibid., p.25.

현장에서 개화남성들의 신여성론과 신여성 스스로에 의한 신여성론 사이엔 간극이 컸음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에게 억압적이었고 당대 신여성들이 씩수의 '새로이 태어나는 여성'을 소망했을 때 파멸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 대표적 예가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과 같은 개화 1세대 신여성작가들이다. 「김연실전」의 주인공 연실이 평양 기생의 딸 김명순이라거나 작중 여자유학생 친목회장 송안나는 나혜석을, 김연실의 친구 최명애는 김일엽을 희화화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작품이 발표될 무렵(1939)엔 이미 위 세 여성작가들이 가정파탄과 입산 등으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였는데도 김동인은 좀 짓궂다는 생각이 든다. 김동인이 여전히 신여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반증 이리라.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김연실전」이 보여준 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내포작가의 이념이야 어떻든 에로스의 적극적 표출이란 길고도 오랜 소재 전통에 접맥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김연실전」이야말로 씩수의 '새로이 태어나는 여성'으로 개화기 독자 앞에 나타난 것이다. 주인공 김연실은 남성이 여성에게 씩은 디스크스 체계를 남성에게 되돌려준 여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텍스트 문면엔 김연실이 남성을 유혹하고 <똥어썩는다>해서 그녀는 유학생들 사이에 <감투장사>란 별명이 나 있기도 하다. <감투>란 무엇인가. 남성의 전유물인 남근적 힘의 상징이 아닌가. 김연실이 이것을 남성에게 씩우는 것은 에로스의 역전이다. 여성의 남성 길들이기이다. 텍스트엔 그 같은 남성 순치를 <곤나꾸처럼 흐늘흐늘>하게 했다고 표현되어 있다. 감정과 본능에 이끌리고 머리보다 가슴이 앞서서 김연실은 오만, 방자, 단순한 성격면에서 실제 작가 김동인의 아니 무스여성이다.

## 2) 대위법적 텍스트 읽기 : 김연실을 위한 변명

지금까지 신여성에 관한 연구는 구식 여성과의 변별성을 드러내는데 주력해 개화기의 이분법적 사고체계인 개화=선=당위/구식=악=존재

에서 신여성들이 전자에 속하며 그들의 역할은 계몽주의 담론의 담지자로서 사회개혁에 앞장서고자 했다는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신여성들로선 신여성/구식여성, 신여성/구식남성 관계보다 신여성/신남성의 역학관계가 훨씬 심각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신여성들은 구식 남성의 안티테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들보다 개화주도 세력이라는 동류의식을 기대했던 신남성들에게서 심한 배반감을 느꼈다. 김동인이 “나는 여자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한다”면서 극단적 여성혐오를 보인 것은 그의 개인적 기질 탓이라 해도 대체로 이 무렵 남성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신여성들은 김연실처럼 연애도착증, 사이비 선각자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 남성작가들이 텍스트에 신여성을 주인공 아닌 단역으로라도 빼놓지 않고 등장시키는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흥미롭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신여성 콤플렉스를 노정했을까. 그들이 신여성의 다른 면은 보려 않고 섹슈얼리티에 많은 관심을 쏟은 이유는 신여성들이야말로 신남성의 손색없는 배우자이면서 가부장적 기득권을 위협하는 도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신여성을 결혼하고 싶은 매력적 상대인 동시에 결혼하기엔 위협적 존재로 여기는 신남성들의 이중성을, 염상섭은 시니컬하게 말한다.

옛적에는 혼서지 한 장으로 계집을 사고 팔고 하였지만 지금 세상에는 여학교 졸업 증서 한 장으로 사내를 사고 팔러가고 하게 되었다 한다.<sup>17)</sup>

그리고는 “여자의 지식이 남자의 취미가 되고 여자의 무지가 이혼의 첫째 조건” 운운하였다. 그보다 훨씬 전에 나온 신소설에서조차 신여성 이 아니면 장가가지 않겠다는 신남성들이 등장<sup>18)</sup>한 터였지만 신여성을

---

17) 염상섭, 『너희들은 무엇을 얻었느냐』, 『동아일보』, 1923~1924(민음사, 1987), p.213.

18) 신소설에 보이는 신여성 선호도 예.

① 지금 시대는 문명한 방향으로 변천하여 비록 여자라도 상당한 학문이 없으

선호하는 남성들은 여자의 지식 정도가 남성의 취미 수준에 딱 그만큼만 머물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여자가 무식하면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유식한 것도 곤란했으니 학교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졸업장만 있으면 족했다. 신여성의 졸업장이야말로 신남성들의 필수품일지는 몰라도 신여성들에겐 비극의 시작이었다.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 불러낸 여성들의 사회적 자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도로 가정 내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이중적 잣대가 신여성들로 하여금 독특한 아이덴티티의 소유자가 되게 한 것이다. 나혜석이 “유학까지 교육받았으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찬 걱정”<sup>19)</sup>으로 신경과민을 호소할만도 하다.

피해자이긴 신남성들도 마찬가지였다. 근대 여명기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마당에 한국인들에게 큰 타자(Other)의 인식적 폭력성<sup>20)</sup>은 제국주의요 개화사상은 식민적 언술의 당의정이었다. H. 바바는 식민적 언술은 하나의 권력기구이며 식민적 속성은 콤플렉스, 양가성, 모순의 재현이라고 하면서 J. 라캉의 모방이론을 차용해 모방이야말로 식민적 큰 타자의 전형이라고 했다.<sup>21)</sup>

우리 개화 주도 세력들이 모방하고자 한 개화가 근대 기술문명=자본주의=제국주의=문화전쟁의 등식관계임을 통찰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

면 가정을 보전치 못하는 단계며……다만 안방이나 지키는 옛적시대 신부와는 절대적 배필이 되기 어렵고……(현상윤, 『해안』)

② 아무쪼록 학문도 있고 성향도 착한 여자를 취택하기 전에는 저는 삼십이 되도록 장가를 아니 들겠습니다……(『홍도화』)

19) 나혜석, 『조선사회의 인식』,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동화출판공사, 1974), p.207.

20) Gayatri Spivak은 식민적 언술의 분석에서 큰 타자의 담론의 인식적 폭력성을 제국주의, 식민적 오리엔탈리즘, 이국적, 원시적, 인류학적, 민속적인 것들로 들었다. Madam Sarup, *Identify, Culture and The Postmodern World*(Georgia Univ. press. 1996), p.103.

21) H. 바바(Homi Bhabha)에게 식민적 모방이란 개척되고 인식 가능한 큰 타자에 대한 욕망인데 모방언술은 양가성 주위에 구성된다고 한다. 또 효과적인 모방이 되기 위해선 미끄러짐, 과도함, 차이들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Ibid., p.169.

개화는 피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제국주의는 의식적으로 원주민을 훈육, 문명화, 근대화하는데 그 전략도 모르고 무슨 유행처럼 일본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남녀를 불문하고 당시 유학생들의 전공과목이 텍스트 문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나혜석의 걸작 「경희」(1918)에서 주인공 경희는 유학생이란 것만 있지 무엇을 전공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김연실전」에서도 김연실은 신여성 폼하라는 내포작가의 가치관 때문이라 쳐도, 작중 남성인물들도 이창수가 농대생이란 정도이고 나머지는 무엇을 배우려 동경 유학을 간 건지 밝혀 놓지 않았다.

이처럼 「김연실전」을 꼼꼼히 읽어보면, 김동인이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신여성인 김연실만은 아니다. 곧 김연실의 상대역인 신남성들도 김연실의 타락에 협조하거나 공범자인 것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연실의 타자로서 작중 남성인물들을 대충 꼽아보면,

- ① 김연실의 어학 개인교사인 측량기사 출신의 기생 오라범
- ② 농대생 이창수
- ③ 유학생 잡지 편집인 맹호덕
- ④ 최명애의 애인 김모

와 같다. 이들은 한결같이 위선적이며 속물스럽다. 김연실의 첫 남자였던 ①의 일본어 개인교사는 아직 소녀 티도 가지지 않은 김연실을 범하는 인물인데, 서술자는 그를 <가장 표준형의 기생 오라범으로 게으름과 무지와 비열을 합쳐 놓은 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의 농대생 이창수는 아내 있는 유부남으로 김연실과의 관계를 그녀가 <뒹어썩우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소심하고 비겁하다. 그리고 ③의 유학생 잡지 편집인 맹호덕은 그 잡지에다 김연실을 <음탕녀>로 규정하고 맹렬히 성토했지만 김연실의 의도적인 유혹에 기꺼이 응한 뒤, 여전히 <조선청년의 중대사명>을 외치는 위선적 남성이다. ④의 김모는 지금은 김연실의 친구 최명애의 애인이지만, 한때 송안나를 비롯한 여성 편력이 다채롭고 김연실

에게도 <염복적> 눈길을 보내는 호색한이다.

이렇게 식민지 지식인 남성의 연애가 경박하기는 김연실과 다를 것이 없었음에도 여성의 연애엔 관용이 없었다. 신여성은 신남성의 연애 파트너이자 불온한 위험인물로 간주되었으니 가부장적 신남성의 치졸성이라 할 것이다.

거기다가 구식남성을 대리하는 김연실의 아버지 역시 평양 아전 출신으로 재산을 모아 신분상승을 꾀하고, 기생과의 사이에서 김연실을 낳았으며 현재도 첩살림을 하고 있어, 이 작품의 남성인물들은 신/구세대를 막론하고 아무도 도덕적이지 않다. 물론 여성 인물들도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김연실전」은 젠더차원에서 주인공 김연실과 신여성/신남성, 신여성/구식남성 신여성/구식여성, 거기다 빈부계층까지를 대위법적으로 읽을 때 독특한 아이덴티티의 소유자인 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해명하게 될 것이다. 워낙 근대의 담론이 양가적이고 다층적이지만 이 같은 속성은 신여성 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 3) 미학과 에로스의 혼동 : 문학 = 연애, 예술 = 인생

흔히 김동인을 자연주의 작가라고 하고 작품으로는 「감자」 「밭가락이 났었다」 등과 함께 「김연실전」을 거론한다. 「김연실전」의 경우 주인공 김연실이 유년기의 비정상적 가족관계와 애정 결핍, 타고난 ‘나쁜 피’의 유전인자로 인해, 표독하고 본능적인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환경결정론으로 재단하는 것이겠지만 나쁜 환경이라고 누구나 김연실같이 되진 않는다. 그보다는 김동인의 소위 인형조종술에 입각한 고압적 서술자가 그녀의 행위를 전적으로 유전과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 편이 옳다.

김동인이 영향을 받았다<sup>22)</sup>고 하는 자연주의 작가 타야마 카다이(田山

22) 정인문, 앞의 책, p.118.

花袋)는 일본 자연주의의 선언이라는 「들꽃」(野之花)의 서문에서 ‘인간을 지상의 짐승’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썼다. 육체와 본능에 대한 긍정이 자연주의이고 보면 「김연실전」에선 본능에 지배되어 번민하는 인간의 진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김연실전」의 인물들은 성욕을 느낄 때면 대상이 누구이건 충족시킬 뿐 고뇌하는 건 아니다. 자연주의 수용 양상은 편차가 있고 여기서 길게 언급할 계제도 아니다.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기출소녀에서 동경유학생이 된 김연실의 육체적, 정신적 성숙을 통해 드러나는 신여성의 섹슈얼리티 문제이다. 그러면 「김연실전」의 내용을 텍스트상의 단락대로 정리해 보자.

① 연실은 평양 이속(吏屬) 김영찰과 퇴기 사이에 태어나 어려서 생모를 잃고 냉랭한 가정의 외톨이로 자라다 진명학교에 입학한다.

② 집안 대청소가 있던 날, 외출에서 늦게 돌아온 연실은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의 첩실한테 갔다가 아버지한테도 실망한다.

③ 연실은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일본 유학 소식을 듣고 유학가기로 결심한다.

④ 연실은 일본 유학 준비로 측량기사 출신 기생오라범에게 일본어 개인교습을 받는다.

⑤ 어느 날 연실은 일본어 교사의 성적 요구에 응하고 얼마 후 어머니의 돈을 훔쳐 가출, 일본으로 건너간다.

⑥ 일본에 간 연실은 고등여학교에 입학하고 이 무렵 첫 생리를 치른다.

⑦ 연실은 조선여자유학생 친목회에 갔다가 송안나의 연설을 듣고 조선여성 선각자가 되기로 마음먹는다.

⑧ 기사사 동료인 일본인 여학생의 권유로 연실은 독서에 열중하며 잡지에 시도 투고하는 등, 문학소녀가 된다. 또 여성 해방은 자유연애로부터라고 믿고 농대생 이창수와 사귀면서 스스로 선각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니던 여학교도 연애학교로 소문난 동경음악학교로 옮긴다.

⑨ 연실은 책 속의 연애와 실제 연애가 다른 것에 초조해 하며 애인 이창수의 소극적 태도를 불만스러워 한다.

⑩ 연실은 친구 최명애가 신성한 연애를 하라는 충고에 무엇이 신성한 연

애인지 모른 채 한 남자와 상대하는 것이 유치하게 느껴져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⑩ 연실은 유학생 잡지에서 그녀를 <음탕녀>로 성토했다는 기사에 분개, 그 잡지 편집인 맹호덕을 유혹하여 그와 애인 사이가 된다. 동시에 <이것이 진정한 연애>요, 선각자의 자격이라 생각하고 고향 친구에게 조선여성의 선각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편지를 보낸다.

위에서 보듯 텍스트 전반부(단락①~⑥)는 김연실의 육체적 변화를, 후반부(단락⑦~⑩)는 그녀의 경박한 연애와 그것에 병행하는 선각자의 식으로 김연실의 '신여성 되기'가 주제이다. 서사구조상 전기적 주인공이 치르는 입사식의 3분절 형식에 따라 가출 → 동경유학 → 귀향(편지)인데 결말단계가 편지로 처리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동인 소설의 결말구조는 완결형 폐쇄구조<sup>23)</sup>임은 김현교수가 상세히 밝힌 바 있거니와 「김연실전」에서의 그것은 김연실을 초점화하면서 진행되던 서술자의 담화가 고향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김연실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가 사이비 선각자임을 폭로하는 충격 효과를 준다.

현대 입사식담의 주인공들이 새로운 인식에 눈뜨는 정신의 도약을 이룩하는 반면 김연실은 선구적 신여성이 되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짜 영웅이다. 그녀의 입사는 가짜이고 아직 그녀는 진정한 신여성이 되지 못했다. 가짜 영웅이 되기 위해 그녀는 동경까지 출분을 감행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 내포작가는 서술자의 발화를 빌어 이같이 말한다.

—아무 목표도 없이 동경으로 건너와서 아무런 정견도 없이 학교에 들었다가 아무 쫓대도 없이 선각자가 되리라는 자부심을 품었던 연실이는 이리하여 <도가와>모(某)의 덕으로 문학소녀로 변하여 갔다.<sup>24)</sup>

23) 김현, 『현대소설의 담화론적 연구』(계명문화사, 1995), pp.26~31.

24) 김동인, 「김연실전」, 『한국단편문학전집』 I(백수사, 1965), p.117.



윗글은 김연실의 변모 중 한 가지인 문학소녀가 되기까지를 전혀 우연인 것처럼 말하는 서술자 요약 부분이지만 그 어조가 내포작가의 것이다.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자기도 그 청년을 보는 순간 픽 마음에 기뻐다고 생각하고, 기쁜 가운데도 속이 떨렸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른 곳을 볼 때 그 청년이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는 몹시 가슴이 뛰놀리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가슴이 이상하여 그를 바로 볼 기회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감전된 것 같은 찌르르한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sup>25)</sup>

서술자의 발화로 된 위 인용문은 김연실의 생각인 것 같지만 그녀의 지각이나 인식이 당대 독자의 기대지평에 어긋남을 조롱하는 내포작가의 아이러니칼한 어조에 의해 그녀의 실상과 외관이 대조적임을 환기하고 있다. 한 문장에서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5회나 반복하는 것은 서술자는 아는데 인물은 모르는 김연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려는 내포작가의 발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고로, 김연실은 아이러니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김연실의 허위의식이 가장 전경화되는 부분이 미학과 에로스의 혼동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일본인 기숙사 동료의 권유에 따라 책읽기를 시작하고 곧 독서에 탐닉하게 된다. 「에일윈」이란 영국 통속소설 읽기에서 비롯된 김연실의 독서는 그녀로 하여금 낭만적 사랑에 도취된 채, 문학과 연애를 동일시하고 <인생의 연애는 예술이요, 남녀간의 예술은 연애니라>는 인식에 이르게 한다. 그녀의 <문학=연애>는 에로스와 미학의 혼동이며 미적 경험과 삶의 거리 유지에 그녀가 무능함을 뜻한다. 마치 「보바리 부인」에서 엠마가 텍스트와 인생을 구별 못하는 순진한 독자의 전형으로, ‘꽃에 이끌려 교회를, 노랫말 때문에 음악을, 자극적 열정 때문에 문학을 사랑하는 본성<sup>26)</sup>의 소유자인 것처럼 김연실이 그러하다. 이런

25) 앞의 책, pp.119~120.

26) R.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근대성과 페미니즘」(거름, 1998), p.136.

면에서 예술과 인생을 구별 못하는 김연실의 속물성은 R. 지라르<sup>27)</sup>의 이른바 욕망의 간접화로서 여성과 근대 대중문화의 결합을 예고하는 듯하다. 하지만 김연실은 연애가 조선 여성의 해방이라 믿고 스스로 그 선각자가 되겠다는 것이어서 보바리부인과는 다르다. 또 <선각자>란 단어가 이 작품이 개화기 담론임을 나타내는 기표로서 개인적 섹슈얼리티를 선각자라는 사회적 자아로 포장하는 김연실의 이런 태도 때문에 당시 여성 선각자들의 페미니즘운동이 부당하게 오해되었음은 불문가지다. 다시 한번 담론은 구성되기가 무섭게 권력을 행사한다는 명제를 상기하게 된다. <자기를 명작소설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연애가 선각자의 실천행위라고 생각하는 김연실은 그것을 체험하고자 한다. 막상 연애의 경험은 책 속의 연애와 많이 달라 김연실은 실망하고 진정한 연애를 찾아 더 적극적으로 남성들과 관계를 맺다, 유학생들 사이에 <덮어씌우는> <감투장사>로 소문이 나고, <음탕녀>로 규탄되기에 이른다. 분개한 김연실은 자신을 성토했던 유학생 잡지 편집인 맹호덕에게 접근, 기어코 제 남자로 만들 고서는 <진정한 연애>를 알았노라고, <선각적 여성>이 되었노라고 고향 친구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때 김연실의 에로스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소설 소비와 등가적인 것으로 남성을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욕의 육식성 바기나(carnivorus vagina)에 가깝다. 텍스트는 에로스의 쾌감을 <곤나꾸처럼 흐늘흐늘> <오금이 저리는> 신체해체와 <맛>(식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김연실의 디스코스가 종래 남성들이 여성에게 덮어씌웠던 호색적 에로스의 연술인 ‘남자를 잡아먹는 여자’, ‘남자를 흘리는 여자’, ‘남자를 빨아먹는 여자’에 닮아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김연실이 사이비 선각자인 것은 그녀의 어리석음에 기인하지만, 그녀의 공격적 에로스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구사한 파괴충동의 디스코스를 남성에게 되돌려 준 성 역할 전환의 섹슈얼리티로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연실전」의 내포작가는 제목 「-전」이 가리키듯 연대기적

27) R. 지라르, 김치수 편역, 『구조주의와 문학비평』(홍성사, 1981), p.188.

호머시학과 단성적(monophonic) 디에게시스, 아이러니칼한 어조, 급박한 템포의 문장으로 내포독자를 집중시키는 발화전략에 의해 김연실의 '신여성 되기'가 가짜 입사임을 드러내는데 성공함과 동시에 김연실의 강력한 에로스는 성 역전극의 소재사에 또 하나의 변이를 보탠 것이다.

#### 4. 맺음말

본고는 '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성 역할 전환의 소재 전통 속에서 검토해 본 것이다.

필자는 신여성들이 하위주체로서의 여성문제를 민족이나 계급문제를 제쳐두고 하필 섹슈얼리티에서 찾았느냐 하는 데 주목, 신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적 구도덕에 저항하는 근대적 여성정체성의 과제일 수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신여성은 신남성과의 역학관계에서 개화기의 담론이 구성해 낸 독특한 아이덴티티의 소유자란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M. 푸코가 “현실은 언술에 반영된다기보다 언술에 의해 구성된다”고 했듯이 신여성은 동시대 담론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담론을 주도한 사람은 신여성으로 자처한 여성들과 그 상대역인 신남성들이었음은 물론이다. 이때 신여성들이 동류의식을 기대했던 신남성들은 양가적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신여성들로 하여금 심한 배반감을 느끼게 했을 법하다. 곧 신남성들은 신여성을 결혼하고 싶은 매력적인 여자/결혼하기엔 위협적 여자라는 이중적 잣대로 보았고 이에 맞선 신여성의 대응이 섹슈얼리티에 집중된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신여성들은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유교 윤리규범인 정절,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해 구세대들과 대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남성들의 신여성 콤플렉스와 갈등하는 복합적 위상에 처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여성에 관한 담론은 대위법적 읽기를 요한다. 근대의 담론이 양가적이고 다층적인 것은 신여성 논의에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1980년대에 발표된 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읽었을 때 두 작품의 공통성은 여성이 주도하는 서사라는 것과 이들의 상대역이 속물적 신남성들이라는 것이다. 작중 여주인공들은 가정을 박차고 여관이나 학교 같은 공적 영역으로 나온 기출 신여성들이는데다가, 남성들과의 관계에서도 능동적이어서 에로스의 역전극을 보여준다. 에로스의 역전이란 H. 썩수의 이른바 ‘새로이 태어나는 여성’이고 그것은 양성적 공존의 문화적 본능에 다름 아니다. 그러기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에로스를 악마적인 것으로 줄곧 소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성 역할 전환의 전상(前像)을 회고하며 그 변이들을 창조해 왔던 것이다. 그런 소재 전통에 기대어 근대 초기 나혜석과 김동인이 재독해한 에로스의 역전극이 「현숙」과 「김연실전」이며 이들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구사한 파괴충동의 디스코스를 남성들에게 되돌려준 셈이지만 작가의 젠더의식과 창작원리 등에서 상호조명의 비교도 가능하다.

우선 「현숙」은 나혜석이 40세때 발표한 소설로, 아직 일반 독자나 연구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작가의 대표작 「경희」의 교훈성 담화를 탈피한 점에서 또 하나의 소설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숙」에서 주인공 현숙은 과거의 상처에 강박된 나머지, 금전등록기로 자처하는 신여성 카페여급이다. 텍스트엔 현숙만 이름이 있고 주위 남성들은 모두 익명의 지식인 남성들로 속물들이다. 그녀는 이들과 반년간씩 계약결혼을 제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깎다점을 계획중이나 그 운영자금 조달 방법이 남성을 상대로 구좌당 성적 서비스라는 것이어서 매춘과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발상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결혼에 대한 대안치고 비판을 면키 어렵다.

「현숙」이 신여성 카페여급 현숙의 자의식에 의한 남성 길들이기라면, 「김연실전」은 동경 유학생 김연실의 저돌적 본능에 의한 남성편력기이다. 제목에서 보듯 김연실의 기출→동경유학→귀향(고향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사진행이 입사식담의 전기적 주인공의 플롯에 따라 그녀의

선각자 신여성 되기가 주제이지만 그녀의 입사는 가짜이다. 그녀는 개인적 욕망인 연애를 사회적 자아 실현으로 포장하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여성 해방이 연애에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 그것을 실천했다고 느끼는 순간, 선각자가 되었노라고 공언하는 경박한 여성이다. 내포작가는 그녀의 실상과 외관의 대조를 환기시키고 그녀의 속물성을 폭로하는데 이것이 텍스트에서 가장 전경화되는 부분이 문학=연애라는 미학과 에로스의 혼동에 관한 것이다. 또한 그녀는 자기가 읽은 책대로 살려고 하고 책 속의 연애를 실제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는 순진한 독자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는 그녀가 미적 경험을 거리화할 능력이 없는 여성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연실은 여성과 근대 대중문화의 결합을 예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 같은 개화기식 성 역전극의 변이라 해도 「현숙」의 섹슈얼리티가 신여성의 자의식에 바탕을 둔 위악적인 것이라면, 「김연실전」의 그것은 욕망과 일탈을 혼동한 채, 선각자의 가면이 겹쳐 있어 위선적이다. 양자의 낙차는 기호학적인 견지에서 전자가 여성에게 호의적인 여성 텍스트임을, 후자가 여성에게 적대적인 남성 텍스트라는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다.

## Abstract

### A Study on New Woman's Sexuality and The Perversion of Eros

Ahn, Sook - Won

I examined the New Woman's sexuality and the perversion of eros based on literary thematics (Stoffgeschichte). I especially pointed out Rha, Hye-Suk's *Hyun-Sook*(1936) and Kim, Dong-In's *Kim, Ryun-Sil jun*

(1939) in this article. That's why they had very exceptional and aggressive sexuality in their period, the so called, Korean Enlightened Times, in the early part of the 20th C.

Actually, the eros of upside-down is a cultural causality and psychic drama referring to the sexual hegemonic conflict in the patriarchy. Many writers have continually represented this androgynous, bisexual utopians in their texts.

Also, Rha, Hye-Suk and Kim, Dong-In presented their way of re-reading this theme. This is what *Hyun-Sook* and *Kim, Ryun-Sil jun* I tried to discuss here. The two texts have something a common with the New Woman taming man. The female protagonists of them attacked the traditional moral, patriarchy. On the other hand, they have many differences as follows.

First, *Hyun-Sook* written by Rha, Hye-Suk presents a new type of marriage according to contract. Hyun-Sook, the main character of the text is a very clever and highly self-conscious cafe waitress. She regards herself as a register, neglecting passion. That's why she's obsessed by her past love-affairs. She only has her name, Hyun-Sook in the text and others are anonymous men referred to by their initial Y, K, L..... She leads the narrative and wants to contract a marriage with her spouse every 6 months. She's going to raise money to pay for a sexual service in exchange for an account. I guess she's snobbish, even though it's a kind of strategy reversing her eros and allows for the contemporary Korean economic poor situation colonized by Japan in the 1930s. It's too difficult to differentiate between her desire and sexual deviation.

Second, *Kim, Ryun-Sil jun* written by Kim, Dong-In confused us, too. The heroine Kim, Ryun-Sil stole her step-mother's money and ran away from home. She went to Tokyo without any idea of what she wanted to

do. She entered a school and soon decided to be the New Woman leader which was affected and mediated by her friends. She began to read a few popular English novels translated into Japanese. She tries to have a boy friend the same as the novel's lover. She believes the sexuality of erotic feeling is real love and that's the way of practicing a woman's liberation. She's not so much a woman leader, as she is a frivolous, hypocritical girl enjoying free sex.

In the semiotic viewpoint, the former written by the female writer who was a New Woman, intentionally upsets the new intellectual men and the traditional morals. The latter, the male writer's ironical discourse, laughs at the New Woman and her love.

In conclusion, both of them criticized the New Woman's sexuality which was morally ruined in the 1930s, but the texts may probably show us a type of a 'Newly Born Woman'(called by Helene Cixous) against the phallic power in the transition period of Korean modernization.

